

2023대입 서울대학교 교사간담회 주요 내용 (2022.5.12.)

전라북도교육청 학교교육과 대입진학지도지원실

I. 전형소개

1. 수시모집 지역균형전형 일괄전형에서 단계별전형으로 변경

- 1단계: 서류100(3배수), 2단계: 1단계70+면접30

☞ 지원 인원 자체가 학과별로 3배수를 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지원하는 학생의 대부분이 면접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기존 일괄전형과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전형의 취지에 맞지 않게 학생의 대표성과 상관없이 최저를 통과하면 합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단계별 전형의 장치를 두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학생들은 1단계에서 불합격시킬 수 있습니다.

2. 수능최저학력기준의 변화

- 4개 영역 중 3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에서 4개 영역 중 3개 영역의 등급 합 7이내

☞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등급을 조금 더 낮추었습니다. 낮은 채로 코로나를 겪고 올해 처음으로 합으로 바꾸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미 완화된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는 수능 충족하는 비율 변화는 크게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올해까지 수능 과학과목 선택 시 서로 다른분야의 I+II 혹은 II+II 조합을 유지합니다. 한편, 인문 쪽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은 '제2외국어/한문'을 반드시 응시할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 최저기준은 통과했으나 이를 응시하지 않아 탈락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수시모집 지역균형전형 의과대학 면접방식 변경

- 일반전형에서 시행해 왔던 MMI 면접을 지역균형전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

☞ 여러 실에서 여러 형태의 면접을 실시합니다. 다른 모집단위의 일반전형에서처럼 문항이 출제되는 형식은 아닙니다. 특정한 상황에서 본인이 어떤 대처법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묻거나 서류를 확인하는 등의 면접을 실시하게 됩니다.

☞ 기존에 없던 면접의 형태는 아닙니다. 우리 대학 홈페이지나 아로리 웹진 자료창고에 들어 가 보면 기출 문항이 있고 이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4. 정시모집에 지역균형전형 도입

- 수능60 + 교과평가40

- ☞ 전체 모집단위가 아닌 일부학과만 시범적으로 시행합니다
: 인문대학 인문계열, 사회과학대학(정치외교학부, 경제학부, 인류학과), 공학대학 광역, 약학대학 약학계열, 의과대학 의예과,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 ☞ 공학대학 광역: 광역으로 선발된 후 기계공학부, 항공우주공학과, 전지정보공학부, 컴퓨터공학부, 화학생물공학부, 산업공학과의 6개 학과 중 본인의 희망으로 진학

5. 인문대학 역사학부 통합 선발

-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학과 각각 선발에서 역사학부로 통합 선발

- ☞ 수시: 지균9, 일반9, 정시(나): 일반10 총 28명 선발
- ☞ 역사학부로 입학한 후 학생의 희망에 따라 위의 3개 전공 중 1개를 주전공으로 하고 그 전공 학과에 소속된 상태에서 플러스 알파로 추가 전공을 해야 합니다.

6. 기회균형전형의 정비

구분	수시모집	정시모집	
	정원외	정원내	정원외
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수능위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기회균형 특별전형 I	기회균형 특별전형 II	기회균형 특별전형 III
지원 자격	* 농어촌학생 * 농생명계열 고교 졸업예정자	* 저소득학생	* 특수교육대상자 * 북한이탈주민

- ☞ 저소득학생 전형이 기회균형특별전형 II의 이름으로 정시 수능위주전형으로 이동했습니다.
- ☞ 특수교육대상자,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형은 대상자가 많지 않아 기회균형 특별전형 III으로 명칭만 변경했습니다.
- ☞ 기회균형특별전형 I 대상자는 수능최저기준이 없습니다.
- ☞ 기회균형특별전형 II 대상자는 교과평가 없는 수능100 전형이나 수능최저기준은 있습니다. 교과평가가 없는 이유는 경제적인 사정으로 학교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2024 대입에 다시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7. 정시 모집에서 '교과평가' 시행

- 정시 지역균형전형에서 교과평가 40, 정시 일반전형 2단계 교과평가 20

- ☞ 평가자료: 학교생활기록부, 교육과정편성표, 학생부 미보유자 대체서류(대교협 양식 등)
- ☞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이수하기를 희망한다는 바람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이고 학교 생활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학생들이 크게 불이익을

받을까 하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A는 아주 극소수의 학생만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학생들을 구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학교생활 이탈을 막게 하기 위함이고 대부분이 B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단 자체가 거의 비슷할 것이고 우리 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고등학교에서의 문제를 일으킨다거나 그런 일은 많지 않기 때문에 큰 테두리 안에서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하기를 바란다는 정도로 선생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교과평가

가) 평가대상: 전 모집단위 지원자

나) 평가등급: A(10점) > B(6점) > C(0점)

다) 2명의 평가자가 독립적으로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아래 조합에 따라 점수를 부여함

라) 교과평가 점수 = 2인 평가 등급 조합 + 30점

등급 조합 예시	A·A	A·B	B·B	B·C	C·C
배점	10	8	6	3	0

[정시 지역균형전형 교과평가]

2) 교과평가

가) 평가대상: 전 모집단위 1단계 합격자(미술대학,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음악대학 제외)

나) 평가등급: A(5점) > B(3점) > C(0점)

다) 2명의 평가자가 독립적으로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아래 조합에 따라 점수를 부여함

라) 교과평가 점수 = 2인 평가 등급 조합 + 15점

등급 조합 예시	A·A	A·B	B·B	B·C	C·C
배점	5	4	3	1.5	0

[정시 일반전형 교과평가]

8. 학생부종합전형 안내

- ① 코로나 상황인 건 동일한데 추천서가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는 내용이 과거 보다 훨씬 더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추천서에 기대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컸지만 없이 진행하는 첫 해이다 보니 선생님들께 많은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고, 놓치는 내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검토하고 잘 선발하려고 노력할 예정입니다.
- ② 우리는 아주 단순하게 ‘학업 능력, 학업 태도, 학업의 소양’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만 학생들이 자료를 정리하고 평가를 합니다. 학업 능력과 학업 태도, 그리고 학업 외 소양에 대해서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이 학생이 갖게 되는 서류 평가에 성적을 부여하는 것이지 각각 항목에 대해 점수를 줘서 최종 확정하는 방식을 쓰지 않습니다.
- ③ ‘교과목 개설 내역, 지원자의 교과목 이수 현황 및 선택 이력을 파악, 도전적으로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학의 어떤 학과에 진학하려고 하는데 그 학과에 진학할 때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게 도와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것이지, 학생이 갑자기 인공지능에 관심이 있어 인공지능 과목을 개설해달라고 해서 그 과목을 개설했냐 개설하지 못했냐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계 학생의 경우에 가장 중요한 과목은 수학과 과학입니다. 수학과 과학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과목을 정상적으로 이수할 수 있게 해주십사 하는 것이 우리가 부탁드리는 전부입니다.** 대학교 1학년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고등학교에서 최소한의 과목은 이수할 수 있도록 과학 I 과 II, 수학의 기본적인 교과 정도를 부탁드리는 것이지 고급 과목을 다수 개설하셔서 고급 수학, 고급 물리학, 고급 생명과학 등의 이수를 권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분별한 전문교과 I 이수는 결코 권장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기본적인 걸 반드시 이수해오라는 것이 우리가 말씀드리는 과목 선택입니다.
- ④ 일반고의 평범한 학교 3학년 1학기 물리학Ⅱ의 교과성취도에서 많은 수강인원과 높은 평균점수를

보면 이상함을 느낍니다. 이런 현상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리Ⅱ를 강조한다고 해서 모두가 이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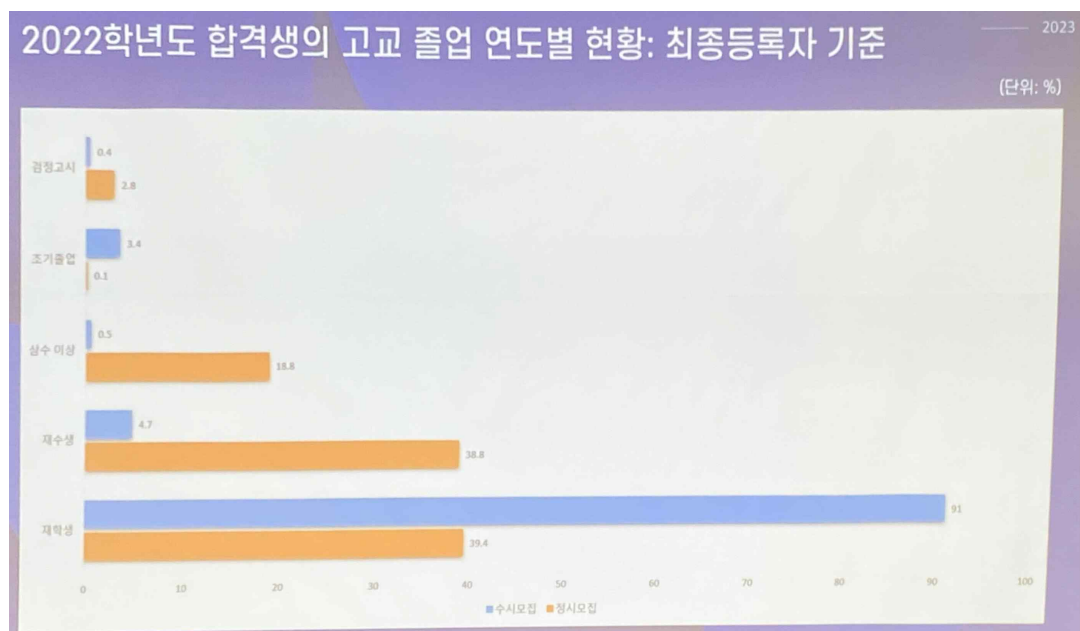
II. 2022학년도 신입생 선발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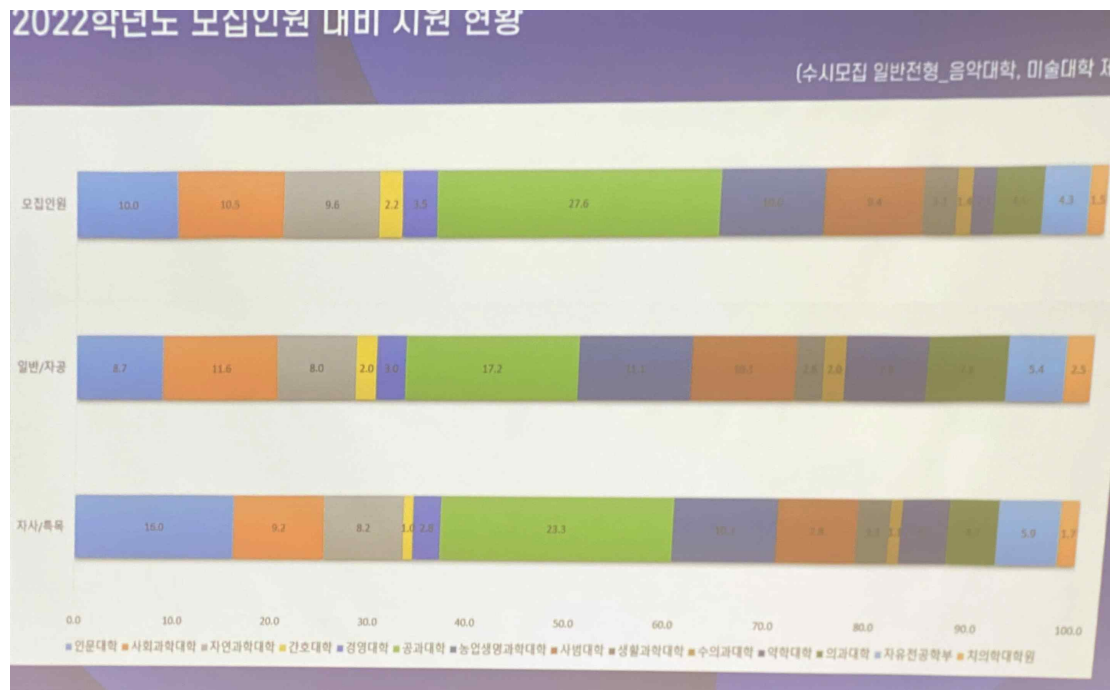
2022학년도 모집시기별 고교유형별 선발 결과: 모집시기별 재학생 비율

(단위: 명/%/재학생의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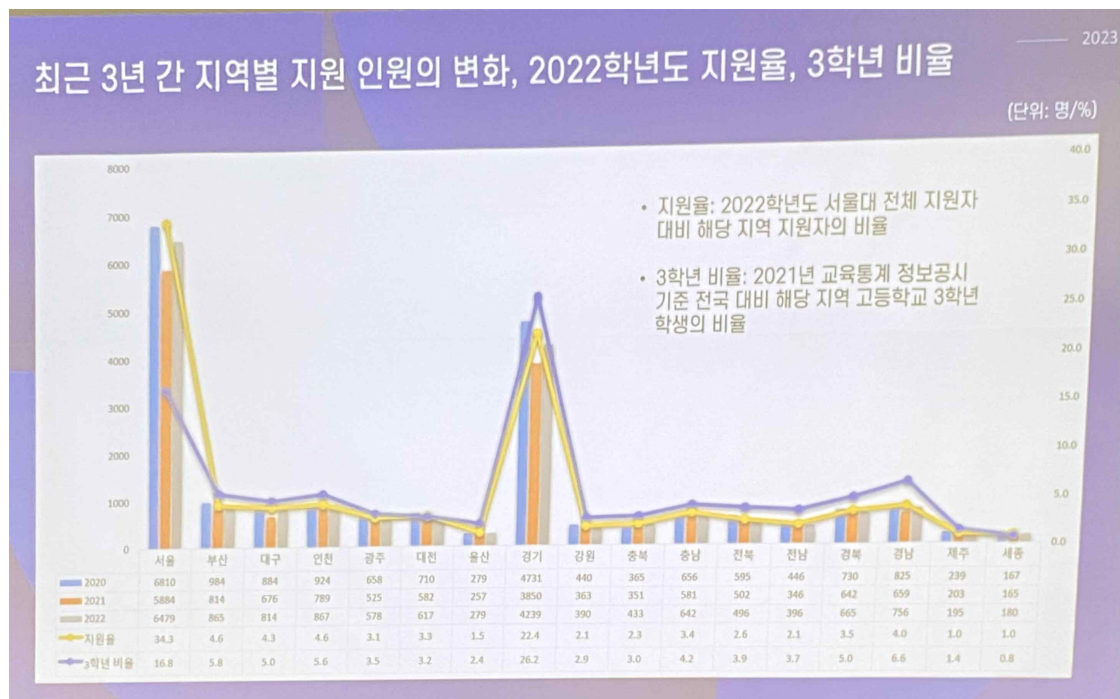
구분	일반	자공	자사	과학	영재	외국어	국제	예/체고	특성화	검정	기타	계	
수시	지역균형	581 88.2	52 7.9	17 2.6	- -	- -	- -	8 1.2	1 0.2	- -	- -	659	
	일반	446 28.3	31 2.0	264 16.8	115 7.3	304 19.3	213 13.5	48 3.0	139 8.8	1 0.1	8 0.5	5 0.3	1,574
	기회균형 I	82 70.1	7 6.0	9 7.7	4 3.4	1 0.9	5 4.3	- -	3 2.6	4 3.4	1 0.9	1 0.9	117
	계	1,109 47.2	90 3.8	290 12.3	119 5.1	305 13.0	218 9.3	48 2.0	150 6.4	6 0.3	9 0.4	6 0.3	2,350
		1,066 87	87 7	277 11.9	119 5.1	300 13.0	208 9.3	45 2.0	109 4.5	6 0.3	- -	1 0.1	2,218
정시	일반	530 51.3	50 4.8	271 26.2	23 2.2	27 2.6	36 3.5	14 1.4	39 3.8	11 1.1	29 2.8	4 0.4	1,034
		219 21.9	24 2.4	113 11.3	6 0.6	9 0.9	12 1.2	7 0.7	19 1.9	6 0.6	- -	1 0.1	416
	기회균형 I	24 46.2	2 3.8	11 21.2	3 5.8	1 1.9	6 11.5	2 3.8	- -	1 1.9	2 3.8	- -	52
	기회균형 II	3 42.9	2 28.6	- -	- -	- -	1 14.3	- -	1 14.3	- -	- -	- -	7
	총계	1,666 48.4	144 4.2	572 16.6	145 4.2	333 9.7	261 7.6	64 1.9	190 5.5	18 0.5	40 1.2	10 0.3	3,443

☞ 수시모집 재학생은 94.4% / 정시모집 재학생은 40.2%





- 자사고 특목고의 지원현황은 모집인원의 분포와 비슷한 형태
- 일반, 자공고는 인문사회는 비슷하나 공대에 지원은 적게 지원하는 경향을 띠며, 의과대는 지원이 편중되어 있음, 약학대의 지원비율이 높음



- 서울을 제외하고 3학년의 비율이 높고 서울지역은 3학년 지원율이 낮고 재수생 비율이 높음

2022학년도 모집시기별 지원-최초합 현황

2023

(단위: %)



☞ 위가 정시, 아래가 수시

2022학년도 수시모집 지역균형선발전형 선발 결과_전북

2023

(수시모집 지역균형선발전형, 음미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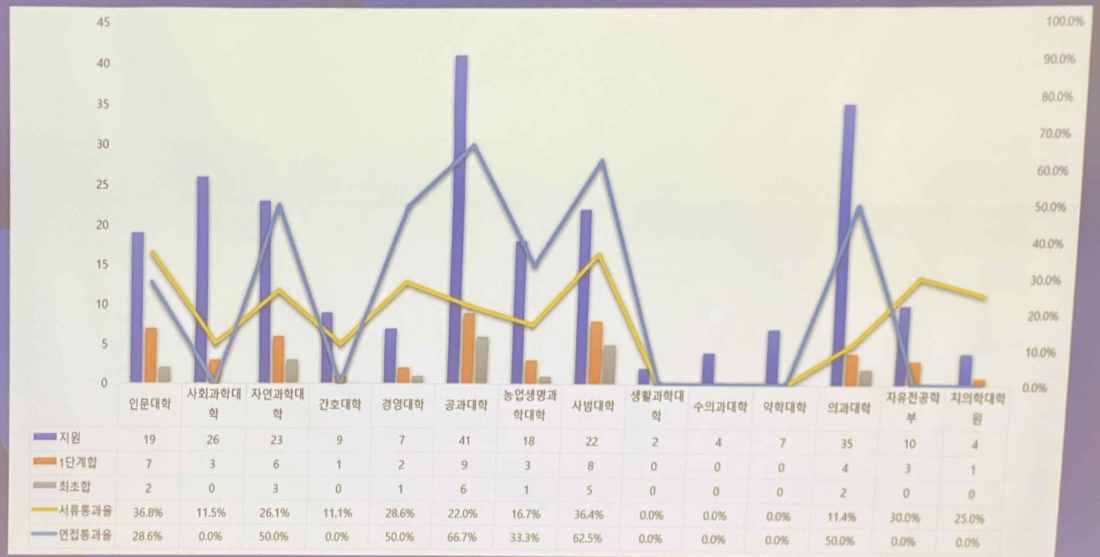


☞ 지균으로 의과대학에 많이 지원하고 있지만 합격자가 많지는 않다.

2022학년도 수시모집 일반전형 선발 결과_전북

2023

(수시모집 일반전형, 음미대 제외)



노란색 그래프는 서류 통과율, 파란색 그래프는 면접 통과율

2022학년도 수시모집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I 선발 결과_전북

2023

(수시모집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I, 음미대 제외)



서울대 아로리 웹진 영상 시청(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전아영)

http://snuarori.snu.ac.kr/renew/admission_guide/seoul_national_univ_new.php

(위 영상은 간담회 중에 상영했고, 서울대 합격생의 인터뷰를 담은 영상입니다.)

III. Q & A

Q 수시 지역균형전형의 단계별 전형이 소도시 일반고에 미치는 영향 및 대비 방안이 궁금합니다.

A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계별 전형에 별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학교 내부 사정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했을 때 단계별 전형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바뀐 것이 고등학교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Q 정시도 지역균형전형 선발이 있는데 생활기록부의 어떤 항목을 주로 정성평가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우리는 교과와 세특 내용만 확인하고 그 외에 진로, 동아리 등은 절대 보지 않기 때문에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시의 경우 학생이 이탈하지 않고 학교생활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교과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과 평가 상황에서 세부적으로 이 학생을 어떻게 하면 변별을 할 수 있을까 하는 평가를 진행하는 건 아니고 정시의 교과 평가는 아주 기계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교과성적의 정성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어 관련 교과 내신에서의 1~3학년 성적 추이의 영향력이나 표준편차 반영 정도, 예체능, 교양 과목 등의 영향력이 궁금합니다.

A 수시의 서류 평가의 교과에 대한 접근은 우리가 모든 방향에서 이 학생의 교과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체 추이, 과목별 교과별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체능 교양 과목 모든 것들을 다 볼 겁니다.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기 때문에 수시와 정시는 같은 이름으로 묶일 수 없는 평가의 형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Q 학교마다 선택과목을 운영할 때 상황이 다르고 교사 수급의 문제와 맞물려 학생의 선택권을 충분히 들어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충분히 열어두지 않은 학생부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교육과정편성표에는 선택군으로 열어두었으나 실질적으로 지정으로 운영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따로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신지요

A 우리가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 학생이 교과를 이수한 내용을 살펴보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들께서 해주시는 학교 안에서의 모든 생활 자체를 학생부만 가지고 100% 운영할 것이라 하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현재까지 아주 많은 수의 학생부를 보고 있고 아주 많은 기간 동안 학생부를 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고 어느 정도는 살펴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듯이 기본적으로 학생이 이수해야 하는 수준의 범위까지는 이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학생이 몰라서 이수를 못하는 상황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가장 큼니다. 여기에서 공부하려면 이 과목은 반드시 이수해야 해라는 말씀을 한마디만 해주셔도 우리 학교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할 때 관심 있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Q 서울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권장 과목을 미이수했을 경우 불이익의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통계학과에 지원하는 학생이 확률과통계를 미이수하거나 공학계열의 지원자가 물리Ⅱ를 미이수한 경우요.

A 우리 대학의 권장 이수 과목을 보시면 결코 특이한 과목을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 과에 오려면 이 과목은 이수를 해야 합니다’는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대단한 걸 실어 놓은 게 아닙니다. 기계공학부를 오겠다는데 물리Ⅰ과 물리Ⅱ를 하나도 이수하지 않았다면 이 학생은 기계공학부에 와서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기공학부 오겠다는데 물리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전자기기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면 도대체 전기공학부가 뭐 하는 곳인지 알까? 라는 의문을 남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권장 과목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권장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학생이 무조건 불합격이라든지 또는 지원 자체가 막힌다든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급적 권장하는 과목은 최소한 이수를 했으면 좋겠고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통계학과에 지원하는 학생이 확률과통계를 미이수하거나 공학 계열 지원자가 물리Ⅱ를 미이수한 경우, 우리가 아무리 이 학생에게 불리함이 없도록 평가하려 하지만 지원자의 대부분이 이 과목을 이수하고 이 학과에서는 이 과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상황이라면 권장 과목 미이수자에 대한 상황은 불이익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서울대학교에서 생각하는 좋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무엇인가요? 과목별 성취 수준 중심의 기술과 진로연계 중심의 기술 중 어느 기술 방식이 좋다고 평가하는지 궁금합니다. 세부능력 특기사항의 기록은 교사가 하므로 교사의 수업방식에 따라 기록내용의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학생이 어떤 선생님을 만났는지에 따라 유불리가 발생하면 공정하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 서울대는 어떤 보완책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에 있어 진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학하는 학과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봅니다. 준비라는 것은 고등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활동, 교과목 이수 등의 정도면 충분할 뿐 대단한 활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대단한 활동을 했다가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록 때문에 걱정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누차 여러 번 말씀드리고 부탁드립니다. 학생들을 자세히 살펴 봐주시고 기록해 주시고 학생에게 활동할 수 있도록 조금 격려해 주시면 그래도 선생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이 유불리는 발생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양의 기록이 들어오고 있고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정말 읽느라고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과거와 비교하면 지금은 말도 못할 정도로 많이들 봐주시고 써주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저희가 잘 찾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지 우리가 무엇을 더 기록해야 하는가에 대한 걱정은 이제 조금 덜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 입학사정관이 볼 때 학생부종합전형 생활기록부 기록에 있어 교사와 학생이 과도하게 신경쓰고 있거나 혹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주세요.

A 과도하게 신경 쓰시는 부분은 진로, 간과하고 있는 부분 학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대학에서 요구하는 건 기본적인 교과 이수와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의 학업적인 태도 그리고 잘 공부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한 진로를 선택했고 그 진로에 맞춘 어떤 활동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한 제시는 우리가 한 적이 없고 할 생각도 없습니다. 지원하는 학생의 기록을 살펴보면 너무 걱정하는 것도 진로이고 너무 과도하게 생각하시는 것도 진로라고 판단됩니다. 교사가 되고 싶다고 해서 꼭 그 관련된 활동을 통해 대학에 진학하면 고등학교 3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도 아깝습니다. 그 3년이라는 시간을 고등학생의 수준에 맞게 고등학교 활동 안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경험을 하는 데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 곳에 초점을 맞춰서 나는 사범대학에 진학하려고 하니까 아동 대상으로 학습 지도를 하거나 또래를 대상으로 학습 지도를 하거나 봉사 활동도 아동 지도에 할애하는 등 이런 활동만 3년 내내 한다고 하면 그 시간이 너무 아깝다고 보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 진로가 맞나 고민하면서 밀고 가거나 그때는 그 진로가 너무나도 간절해서 그것과 관련된 활동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느 순간 이걸 아닌 것 같거나 기존 진로에 관심이 없어지거나 관심의 주제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 시간에 그 시점에 아니면 어느 시간에 무언가가 관심이 있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찾아보고 활동해보고 했다면 주제가 바뀌고 시간이 바뀌고 관심이 달라지면서 그 달라진 주제와 관심 안에서 또 열심히 하는 점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안에서 그렇게 열심히 생각했고 생활했고 공부했다면 대학에 진학해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영상에서 보았던 신입생처럼 정말 신나고 좋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대학교 생활도 잘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너무 진로의 작은 범위 안에서만 학생이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는 정말 학업을 간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활동에 치중하시고 외적인 것에 치중하시다 보니까 말씀드립니다. 고급 과목 개설해서 학생이 이수하면 좋아 보일 것이라는 차원에서 고급 과목을 개설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해보는 것이 어떤 경험 차원에서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그 정도 깊이 있게 고급 과목을 꼭 이수할 필요가 있는가의 차원에서는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고급 과목 이전의 II과목 또는 수학교 일반적 과목 선 안에서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박 겉핥기로 얼른 해치우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빠르게 넘어가는 것이 학생에게 깊이 있는 생각을 쌓을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 인지는 의문입니다. 일선에서 과목의 선택권을 강조하다 보니 색다른 과목을 제시해 주고 선택 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을까 하여 심리학과 지원자들은 교양 과목에서 심리학 과목을 거의 다 수강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목은 대학의 심리학과에 진학해서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에서 접하는 심리학 과목은 대학에서 학습하는 내용과 비교하여 단순히 관심을 키워주는 정도라 봅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도구 과목은 깊이 있게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대학교에 와서 아이가 공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학업 이며 대학교에서도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네 번째도 공부 잘하는 학생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공부 잘하는 학생의 성적 수치가 아주 뛰어나면 좋은 학생이냐라고 하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어느 대학도 공부 못하는 학생 데려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학업 인데 이 학업의 역량을 키우는 방법을 좀 다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Q 자기소개서 특색항목인 독서에서 꼭 필요한 준비를 해야 한다면 무엇일까요?

A 독서가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과 역할이 있기에 권장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새로운 리스트를 보여준다면 그 모든 책을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의미하는 독서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독서로 하여금 대학에 왔을 때 이 학생이 자료를 찾아보고 깊이 생각해보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등 생각의 확장과 깊이 등 사고의 수준과 깊이를 더해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독서를 쓰라고 할 때 책의 선정 이유를 쓰라고 하지 책의 내용을 쓰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그 학생(서울대 아로리 신입생 영상) 말씀 다시 한번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학생이 계속 본인을 생각해 봅니다. 내가 정말 여기를 왜 가고 싶은가 내가 이것을 왜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계속 설명하고 있고 내가 쓰지 못하는 것은 내가 정말 원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 보자 하는 이 과정 자체가 우리가 꾸준히 지원자들에게 묻는 내용과 합치되는 것입니다. 너의 생각이 무엇이니, 어떤 수준까지 생각을 해봤니, 나를 설득해 봐 등이 우리가 계속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면접과 자기소개서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학생의 생각을 듣는 거지

이 학생이 무엇을 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아리 내용에서 뭐가 달라질 수 있는지 항상 질문들을 하십니다. a고등학교, b고등학교, c고등학교 각각에 똑같은 동아리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동아리 하나를 해도 10개의 동아리 한 것 같은 활동을 하고 생각을 해보고 공부를 한 지원자가 있고, 10개의 동아리를 했는데 1개만도 못한 동아리 활동을 한 학생이 있습니다.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고 어떤 역할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통해서 본인의 역량을 키웠느냐가 우리가 가장 보고 싶은 것입니다. 독서나 동아리 혹은 그 외에 다른 활동들도 결국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소개한 영상 속의 학생처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학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Q 진로를 위해서 다양한 생각과 고민을 통해서 혹은 활동을 통해서 본인의 역량 진로를 찾아내는 학생을 더 높게 평가한다고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진로가 미리 중학교 때부터 확정되어서 1학년 때부터 해당 활동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 활동 위주로 했던 학생은 오히려 덜한 평가를 받을 수 있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A 그건 아닙니다.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이유는 너무 학생들에게 진로에 짐을 지워주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한 것을 바꾸지 못하고 2, 3학년을 보내는 학생들로부터 반복적으로 받게 되는 질문이 그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진로를 일찍 정해서 외길을 걷는 학생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학생도 당연히 좋습니다. 진로가 계속 바뀌고 활동 내용이 어떤 특정 학과에 정해져 있는 활동 내용이 없다고 해서 그 학생들이 잘못된 고등학교 생활을 보낸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 학생도 중요하고 이 학생이 한 활동 내용도 중요하고 좋은 모습을 양쪽이 다 가지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진로를 일찍 정해서 이와 관련된 활동 내용을 하지 않으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시는 외부의 그런 생각들이 강하게 어필되다 보니 제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여러 차례 저 또한 너무 과하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일찍 준비하면 그 나름의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이제 좀 더 계속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도 갖게 되고 활동이나 공부나 경험 같은 것들을 더 쌓을 수 있으니까 문제가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Q 지금 대다수의 전라북도에 있는 고등학교가 고교 학점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학교도 교사 수급과 이런저런 상황으로 물리Ⅱ 교과가 개설되지 않았습다. 물리Ⅱ를 개설할 방법이 없으니까 전문계 교과 혹은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을 통해서라도 학생을 지도해야 하는데 전라북도에선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 물리Ⅱ가 개설돼 있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그나마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고 진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고급물리학이나 등의 전문교과 쪽으로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아까 사장관님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물리Ⅱ도 안 했는데 고급 물리학이나 이런 거 하면 오히려 더 좋게 보이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도 말씀하셨습니다. 학교에서 물리Ⅱ를 못하는 상황이고 특정 교과를 개설 못한 상황에서 애들이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사장관님들이 얘기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 학생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장기적인 입장에서 학생 본인이 정말 희망하는 학과에 물리Ⅱ가 필요하다면 그 학생은 물리Ⅱ가 공부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건 우리도 지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지역에서 물리Ⅱ가 정상적으로 쉽게 이수 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 수급 문제가 너무 중요한 문제고 이곳 전북뿐 아니라 더 외진 곳으로 가면 물리 개설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저희가 이해한다고 그냥 지나가기에는 결과적으로는 장기적인 상황에서 피해는 결국은 학생들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리Ⅱ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드

리려고 했던 말씀은 과정의 이수 자체가 혹시라도 대학에서 그걸 이수하면 좋게 평가할까는 기대감이라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본인이 좋아서 이수를 하고 부족한 부분을 좀 더 메꾸기 위해서 추가적 이수를 했다면 그 자체가 긍정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만 물리Ⅱ나 다른 과학Ⅱ 과목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저희가 무조건적 강요나 고등학교에서의 어떤 도구라든지 이런 것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기에 조금 더 긴 시간 같이 좀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신 의견은 돌아가서 다시 한번 다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혜선, 김은정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